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저희는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SLC 센터로 파견되어 대략 한 달간 지냈습니다. 변화가에 위치해 있지 않아 큰 소음은 없었으나 시내로 나가려면 택시나 에프비 타고 나가야 해서 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SLC에서 샌딩 서비스라고 무료로 변화가까지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많이 와 지내기 때문에 샌딩 서비스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수업	첫 날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과 그룹이 만들어지고 각 레벨별로 책을 받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핸드폰은 쓰면 안 되고 오로지 영어로만 말해야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영어스피킹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룹 수업 4개, 1:1 수업 4개로 구성되어 있고 3일동안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선생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룹도 그룹 티쳐와 성격이 맞지 않아 선생님 교체를 했는데 정말 만족했습니다. 바꿨다면 선생님 눈치가 조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왕 배우러 왔고 오피스에서도 바꾸는 걸 적극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건 Reading, Words, Idioms, Impact Issue 등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쳐줍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공감대 형성하기도 좋고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MMC라고 그룹별로 영상 제작해야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광고와 뮤직비디오 총 2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당시에는 스트레스 받았으나 돌아해보니 MMC 덕분에 그룹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좋은 추억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저희는 마닐라 투어, 안바야코브 리조트, 바베큐파티 총 3개의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마닐라 때 쇼핑할 비용과 안바야코브 때 1,000페소, 바비큐파티 때 400페소를 냈으니 넉넉하게 액티비티 비용으로 50,000원 정도 제외하고 경비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트클럽은 기상악화로 못갔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기라 그런지 비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왔습니다. 나중에는 적응해서 비 오는 날 수영장에서 수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5시까지는 교실에서 수업만 듣는데 에어컨을 뽕뽕하게 틀다보니까 긴팔, 긴바지 많이 가져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	SLC 센터 밖에는 가드 분들이 계셔서 안전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변화가도 대부분의 큰 마트에 가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 등 생각보다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은 기대를 정말 하지 않고 가셔야합니다. 저희 방은 보일러가 터져서 하루종일 가스 냄새를 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았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워서 밤새 틀고 잘 순 없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기타() 점심 때는 한식이 나와서 괜찮았습니다. 밥 맛있달래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맛은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갈 때쯤 되니 밥이 맛있어졌습니다. 저녁은 나가서 변화가에서 먹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짭으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통	SLC가 산 속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택시 아니고선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택시아저씨와 흥정을 해야합니다. 120-150 페소가 적당하고 200은 비싼 편입니다.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액티비티 비용	50,000	
개인 여행비	350,000	
합계	1,127,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매주 주말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수업만 하니 생각보다 필리핀 낮 시간대에 잘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교실은 에어컨이 뽕뽕하게 틀어있으니 되도록 긴팔, 긴바지 가져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400달러 환전했고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저는 부족했습니다. 생각보다 액티비티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꽤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택시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같은 경우는 MMC 그룹이랑 동물원, 오션 어드벤처 등 티켓을 따로 예매해 갔다보니 이런 액티비티 비용도 생각해서 환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매주 마사지샵가서 마사지 받고 음식집에서 음식을 먹다보니 저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서 나중에는 친구에게 빌렸습니다. 수업이 총 8개가 있어서 8명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되도록 한국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기념품이나 선물을 많이 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사이에 무슨 정이 들겠나 싶지만 정말 정이 들고 Graduation Day 때는 선생님과 서로 울었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드는데 선물도 뜻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생각보다 예쁜 편지지가 없으니 한국에서 사오셨으면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사실 영어를 배우러가는 것 보다 저는 외국에서 한 달 살아본다는 것과 그 곳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메리트를 느껴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이곳은 정말 훌륭한 곳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쓰지 못하다보니 억지로라도 영어로 말해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답답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제가 만약 틀린 문장으로 말하면 그것을 다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말씀해주시면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분들이 다들 젊으셔서 공감대 형성도 많이 하고 영어로 이야기는 것에 있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시간이 정말 안 갈 것 같은데 지나다보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짧다고 느꼈고 2달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과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으나 액티비티 부분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비큐 파티입니다. 바비큐 파티라길래 저는 파티처럼 파티장을 꾸며서 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꾸워다 주는 고기를 그냥 저희가 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단출했고 초대하고 싶은 선생님을 총 10명 초대하라는데 저희 학생수가 30명이고 각자 친한 1:1 선생님이 있는 만큼 이는 딱히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10명밖에 초대를 못했지만 고기도 많이 남아서 꼭 이런 방식으로 '바비큐 파티를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오고싶은 선생님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한, 스케줄이 정말 유동적입니다. 저희 야트클럽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기상악화로 액티비티는 취소되었습니다. 가장 기대 많이 한 액티비티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액티비티 부분에서 마냥 좋았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지원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나중에 돼서는 MMC 그룹별로 영상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친해집니다. MMC는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 받지만 만들고 나서는 하나의 추억이 되는 작품을 완성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안바야코브	편 프라이데이
	
수빅시티투어	안바야코브 MMC 그룹
	
Graduation Day	수영장 앞